

기숙사비 납부방식 다양화필요

강다은 기자 ekdms200202@khu.ac.kr

기숙사비 납부방식이 현금 입금 방식으로만 한정돼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고 있다.

2015년 교육부에서는 ‘대학생 기숙사비 납부방식 개선안’을 마련하고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.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학교를 비롯한 다수 대학의 기숙사비 카드납부 및 현금분할납부 방식 확대는 미진한 상황이다.

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을 기준으로 기숙사비 카드납부가 되는 대학은 건국대, 서울교대, 서울여대 3개교에 불과하다. 현금 분할납부가 되는 대학은 건국대, 서강대 등 14개교다.

현재 기숙사비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를 모두 시행하는 서울권 대학은 건국대뿐이다. 현재 우리 학교는 두 가지 방식 모두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금납부만이 가능한 상황이다.

2인실 기준 행복기숙사의 입주 기간에 따른 납부금액은 6개월과 4개월 각각 169만 원(보증금 40만 원 포함), 116만 원(보증금 30만 원 포함)이다. 우정원은 학기(16주)와 연간(48주) 납부방식으로 운영되며 학기는 130만 원(보증금 10만 원 포함), 연간은 325만 원(보증금 10만 원 포함)을 납부하게 된다. 제2기숙사는 학기, 반기, 연간 방

주요대학 기숙사비 납부방식		
대학	카드납부	분할납부
건국대	O	O
경희대	X	X
고려대	X	X
서강대	X	O
서울대	X	O
서울시립대	X	O
서울교육대	O	X
중앙대	X	X
한국외대	X	O
한양대	X	X

*2021년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

식으로 운영되며 학기 147만 7920 원(보증금 10만 원 포함), 반기 208만 760원(보증금 10만 원 포함), 연간 371만 7040원(보증금 10만 원 포함)을 납부한다.

따라서 6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, 행복기숙사의 기숙사비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현금으로 한 번에 지불해야 한다. 더불어 우정원과 제2기숙사의 기숙사비를 연간 납부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등록금 가까이의 비용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.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숙사비 납부 기간이 등록금 납부 기간인 학기 초와 겹친다는

점에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

타 학교의 경우 분할납부 시행 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. 건국대의 경우 중도퇴사 시 전체 기숙사비에서 30%를 제하고 환불받게 되는 위약금 지불 방식을 택하고 있다. 또한 서울시립대의 경우 학생과의 상담으로 분할납부 날짜와 횟수를 개별적으로 결정해 발생할 수 있는 연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.

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기숙사비 납부방식의 다양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. 행복기

숙사 행정실은 “카드납부 시 발생하는 카드 수수료를 기숙사가 부담하게 되면 운영수입이 감소한다”고 설명했다.

분할납부의 경우에는 “연체 발생 시 납부 독촉 업무 증가 및 독촉연락 학생 수신 거부 문제 발생한다”며 행정력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. 이어 “학생 중도 퇴사 시, 후속 입사자 선발에 어려움이 생겨 기숙사 수입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”며 “기숙사비 납부 방식 다양화로 인한 기숙사 수입 감소는 결국 기숙사비 인상과 학생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국제총학 심사과정 공정성논란

서세종 기자 sejong0362@khu.ac.kr

국제캠퍼스 총학생회(국제캠 총학)가 개최한 ‘희대의 사진’ 콘테스트에서 전·현직 중앙운영위원들의 작품이 다수 선정돼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.

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는 신입생들에게 주어질 <경희백과>에 수록될 사진을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 행사로, 선정된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증정됐다. 그러나 이번 콘테스트 선정작에 김정환(디지털콘텐츠학 2015) 부총학생회장과 김진우(식품환경신소재공학 2017) 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, 채근준(국제학 2016) 전 국제대학 학생회장의 작품이 포함됐다. 이를 두고 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.

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전완주(일본어학 2015) 총학생회장은 “심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”며 “이번 콘테스트 심사 주체는 총학생회 디자인트임으로, 김정환 부총학생회장과 김진우 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심사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”고 전했다. 이어 전 회장은 “심사는 <학교의 전경을 아름답게 담아낸 사진>, <경희백과의 콘텐츠와 어울리는 사진>, <화질이 높은 사진>이라는 선정 기준에 맞게 이뤄졌다”고 전했다.



2022년 상반기 경희대학교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(8개 대학 공동)



- 행 사 명

2022년 상반기 경희대학교 메타버스 취업박람회
- 일 정

1차 (2022.3.7~3.8) / 2차 (2022.3.14~15)
- 참가대상

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경희대학교 학부/대학원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
- 참가방법

경희대학교 취업박람회 홈페이지(www.khu-jobfair.com) 통해 참가 신청(2.28 오픈), 행사 당일 홈페이지에서 '접속' 버튼을 통해 채용박람회 메타버스 행사장 입장
 - 기업별 채용상담은 선착순 대기방식으로 진행되며, 운영시간내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
 - 학교 이메일(**@khu.ac.kr)로 인증해야 참여 가능
- 행사장소

온라인(메타버스) 박람회장 [행사 당일 웹캠 및 마이크가 가능한 노트북 또는 PC로 접속 권장]
- 참가대학

경희대학교, 서울대학교, 연세대학교, 고려대학교, 서강대학교, 성균관대학교, 한양대학교, 중앙대학교 (총 8개 대학)
- 참가기업

삼성, LG, SK, 롯데, 현대, 포스코 등 67개사

구 분	일 자	참가기업
1차	3.07 ~ 3.08	현대그룹, 삼성디스플레이, 삼성물산 건설부문, 삼성전기, 알파사이츠, 에스지아시아서울보증, 엘지디스플레이, 엘지생활건강, 엘지씨엔에스, 엘지유플러스, 엘지이노텍, 엘지전자, 포스코, 포스코건설, 포스코케미칼,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, 에이비인베브코리아 오비맥주, 월드잡플러스, 에프에스티, 마인드에이아이(Mind AI), 지에스 이피에스, 심텍
2차	3.14 ~ 3.15	삼성생명, 현대모비스, 현대오일뱅크, 현대카드, 현대캐피탈, 오뚜기, 탐코,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코리아, 엘엑스세미콘, 엘엑스하우시스, 엘지에너지솔루션, 월드퀀트, 한솔그룹, 에이비인베브코리아 오비맥주, 인드에이아이(Mind AI)